

# 캐논, RF 마운트를 채택한 시네마 렌즈 및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러 신제품 공개

캐논이 RF 마운트의 단초점 시네마 렌즈 라인업 ‘프라임 렌즈’ 7종, 엔트리급 실내용 리모트 카메라 CR-N100, 하이엔드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러 RC-IP1000 등 촬영 현장에 대응하는 방송·영상 장비 신제품을 선보인다.

## 프라임 렌즈 시리즈, 최초의 RF 마운트 시네마 렌즈

캐논은 시네마 렌즈 중 최초로 RF 마운트를 채택한 ‘프라임 렌즈’ 7종을 발표했다. 신제품 프라임 렌즈는 시네마 카메라 EOS C70과 EOS R5 C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수동 단초점 렌즈로, 4K 및 8K 촬영을 위한 뛰어난 광학 성능, 시네마 스타일의 조작성, RF 마운트 채택에 따른 신기능이 특징이다.

신제품 프라임 렌즈 7종 라인업은 14/20/24/35/50/85/135mm의 초점거리를 지원하며, 색감 밸런스를 통일해 렌즈를 교체하면서 촬영해도 이질감 없는 촬영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 대구경 비구면 렌즈와 이상 분산 렌즈 등 최적화된 광학 설계로 뛰어난 광학 성능을 구현했으며, 풀프레임 센서 대응, T1.3~T3.1의 밝은 조리개 값을 채택해 얇은 심도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배경 흐림 효과 및 부드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RF 마운트를 채택하면서 촬영 현장부터 후보정까지 영상 제작 편의성을 개선했다. EOS C70 및 EOS R5 C 카메라에 체결 시 고속으로 렌즈 메타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주변광량보정 및 배율색수차 보정에 이어 왜곡수차보정도 가능해졌다. 또한, 포커스 조작

시 측거 정보와 렌즈의 거리 정보를 이용한 듀얼 픽셀 포커스 가이드가 표시돼 부드럽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신제품 프라임 렌즈는 라인업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특히 조작링의 토크감과 미끄럽지 않은 그립으로 시네마 촬영 시 정밀하고 부드러운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조작링의 기어 위치, 렌즈 지름 및 회전 각도를 통일해 매트박스나 외부 초점 조절 액세서리의 장착 위치를 조절할 필요 없이 렌즈를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다.

프라임 렌즈 시리즈는 오는 2024년 초 순차 출시 예정이며, 캐논은 향후 프로 영상 제작 니즈에 부응하는 RF 마운트 장비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 CR-N100, 4K UHD 30P를 지원하는 엔트리급 PTZ 리모트 카메라

캐논 CR-N100은 콤팩트한 바디와 PTZ(Pan-Tilt-Zoom) 기능을 갖춘 엔트리급 실내용 리모트 카메라로, 비대면 회의나 강의,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영상 촬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CR-N100은 1/2.3" CMOS 센서와 DIGIC DV6 엔진을 탑재해 엔트리급임에도 4K UHD 30P의 탁월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 35mm 환산화각 기준 29.3mm~601mm 초점거리의 20배 광학 줌을 탑재했으며, 콘트라스트 AF와 외부위상차 AF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AF로 빠르고 정확한 AF 기능을 지원한다. 최대 9명의 얼굴을 검출해 자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하는 기능도 갖췄다.

CR-N100은 캐논의 독자적인 영상제작용 공통 IP 제어 프로토콜인 'XC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IP 방식의 접속으로 다른 캐논 기기와 연계해 유연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다. 그뿐만 아니라 RTMP/SRT/NDI|HX와 같은 프로토콜과도 호환해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비디오 인터페이스로 IP 외에도 HDMI, USB 비디오 클래스(UVC) 전송 표준을 지원하는 등 서드파티 기기와의 접속성도 향상했다. 또한, 캐논의 다중 카메라 관리 앱(Multi-camera Management Application)을 사용할 시 최대 200대의 카메라를 일괄 설정 구성 및 제어할 수 있다. CR-N100은 올해 말경 출시 예정이며, 색상은 검정/흰색 두 가지다.



## RC-IP1000, 정밀하고 빠르게 카메라를 제어하는 하이엔드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러

캐논 RC-IP1000은 리모트 영상 제작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기능과 쾌적한 조작성을 갖춘 하이엔드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러로, 방송 영상, 대형 교회나 대규모 행사장 등 다양한 제작 환경에서의 니즈를 충족한다.

RC-IP1000은 작업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버튼과 다이얼, 7인치 터치패널 등으로 구성했다. 작업자는 터치패널에서 리모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를 사용해 리모트 카메라 PTZ의 움직임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초점, 노출 및 화이트 밸런스와 같은 설정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4K 60P 영상 입출력을 지원하는 12G-SDI 영상 인터페이스를 탑재했으며, IP 및 시리얼 연결과 HDMI 영상 출력을 지원한다. 또한,

컨트롤러만으로 최대 200대까지 원

격 작업이 가능하며, 초기 설정 및 프리셋 기능을 총괄하여 실행하는 기능도 갖췄다.

RC-IP1000은 올해 말경 출시하며, 11월 말경 PC용 다중 카메라 관리 앱(Multi-Camera Management Application)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 소니, 새로운 시네마 라인업 부라노(BURANO) 글로벌 공개

1인 및 소규모 제작자를 위한 컴팩트 풀프레임 8.6K 시네마 카메라

BURANO



소니는 시네마 카메라 최상위 라인인 ‘시네알타(CineAlta)’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부라노(BURANO)’를 글로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BURANO’는 시네마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인 ‘VENICE 2(베니스 2)’의 컬러 사이언스를 지원하며, 8.6K 35mm 풀프레임 CMOS 이미지 센서로 VENICE 2의 대부분의 사양을 제공한다. VENICE 2보다 길이는 32mm 짧고 무게는 1.4kg나 가벼워진 컴팩트한 바디로 이동성이 뛰어나 개인 또는 소규모 촬영 팀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PL 마운트 카메라로는 세계 최초로 바디 내장형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IBIS)을 탑재했으며, 이전보다 얇아진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내장했다. PL 마운트를 분리할 경우 E-마운트 렌즈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빠른 하이브리드 AF와 피사체 인식 AF를 지원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

## 강력한 8.6K 풀프레임 센서

BURANO는 VENICE의 컬러 사이언스를 사용하며 VENICE 2 사양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8.6K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다. 16스톱의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와 듀얼 베이스 ISO(800/3200)를 지원해 까다로운 조명 조건에서도 노이즈가 적고 선명한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소니 풀프레임 시네마 라인업의 모든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Super 35mm 풀프레임을 지원하며, 아나모픽 렌즈를 위한 디스퀴즈(Desqueeze) 기능을 탑재했다. 8K 30P 촬영부터 6K 60P와 4K 120P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VENICE 2보다 길이는 32mm, 무게는 1.4kg이 줄어들어 기동성이 뛰어나며, 견고한 마그네슘 외장재를 사용해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촬영에 적합하다. 환경을 위한 소니의 노력의 일환으로 BURANO 카메라 및 액세서리 패키징 백 재질은 플라스틱 대신 식물 기반의 셀룰로스 소재를 사용했다.

### 최적의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BURANO는 세계 최초로 본체 내 손떨림 보정 기능 (IBIS)이 내장된 PL 마운트 호환 카메라다. 소니의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 Alpha 시리즈의 손떨림 보정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손떨림 보정 매커니즘과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PL 마운트 렌즈나 E 마운트 렌즈를 사용해 핸드헬드 또는 움직이며 촬영하는 순간에도 원치 않는 카메라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다.

E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의 무게와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소니의 70여 개의 E 마운트 렌즈는 Alpha 시리즈에서 쌓아온 뛰어난 손떨림 보정 기능과 위상차 검출 및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고속 하이브리드 AF, AI 기반의 피사체 인식 AF를 지원한다. 0.6부터 2.1까지의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지원해 다양한 조도에서도 밝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식 가변 ND 필터로 조리개를 통한 심도 제어가 가능해 피사계 심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최적의 노출을 얻을 수 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부터 다양한 포맷 지원으로 개선된 워크플로우 효율성

BURANO는 영화 제작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개선해 실제 현장에서의 촬영 효율도 높였다. 먼저, 모든 메뉴 버튼을 촬영자의 방향으로 배치해 촬영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3개의 탈리 램프로 녹화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5인치 LCD 모니터를 뷰 파인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면을 터치해 포커스를 작동하는 등 메뉴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견고한 T-핸들, 뷰 파인더 암, 2개의 3핀 XLR 오디오 입력 단자 및 단독 촬영 시 편리한 헤드폰 단자(스테레오 미니잭) 등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BURANO는 해상도, 종횡비 및 코덱에 따라 HD에서 8K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MPEG-H HEVC/H.265 고압축 효율 코덱을 사용하는 새로운 8K용 XAVC H와 같은 다양한 내부 레코딩 포맷을 지원한다. 다른 레코딩 포맷으로는 XAVC 및 X-OCN LT가 있다. X-OCN은 소니의 오리지널 압축 RAW 포맷으로 16비트 리니어 데이터로 촬영한 정보를 캡처할 수 있어 후반 작업 시 컬러 그레이딩의 자유도를 높여준다. X-OCN LT는 파일 전송 시간과 스토리지 크기 부하를 줄여, RAW 데이터 활용 시 대비 효율적인 후반 작업 워크플로우 운영이 가능하다.

BURANO는 2개의 새로운 CF express Type B 메모리 카드 슬롯을 갖추고 있으며 X-OCN LT 8K를 포함해 높은 비트레이트의 비디오 데이터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VPG400을 지원한다. 소니는 호환 가능한 CF express Type B 메모리 카드인 CEB-G1920T(1920GB)/CEB-G960T(960GB)를 출시할 예정이다.

### 제작자의 편의를 위한 시네마 라인 호환성 및 편리성 개선 노력

BURANO는 BT.2020 및 DCI-P3보다 광범위한 색영역을 포괄하는 S-Gamut3와 S-Gamut.Cine를 포함한 넓은 색공간을 지원한다. VENICE 2를 포함한 소니의 시네마 라인 카메라와 동일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기에 제작자는 동일 라인 내 다른 카메라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BURANO는 Cine EI 모드에서 새로운 4가지 시네마틱 룩(Warm, Cool, Vintage, Teal and Orange)과 함께 기존의 s709 및 709(800) 룩업 테이블(LUT)을 지원한다. VENICE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소니의 Crystal LED VERONA(베로나) 등 대형 스크린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가상 프로덕션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다.